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영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명동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태도 양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609,1300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6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한국 YWCA

2016년 7·8월호
 July·August
 Vol.532

이달의 생각
 YWCA 청년운동 부활을 위한 선결과제

기획
 "YWCA 청춘에게 길을 묻다"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Y사람을 향한 당신과 나의 이야기

이달의 이슈①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



독립유공자, 흥에스더 제4대 회장



흥에스더(1892~1975)는 기독교 여성운동가이자 교육가였다. 1912년 이화학당 중등과를 졸업하고 이화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17년 이화학당 대학본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 만주 무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중심의 동지회를 결성, 3·1운동 때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78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1920년 이화여대 출신 김활란, 윤성덕, 김애은 등과 7인전도대를 조직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1922년 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1923년 9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발족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미국 감리회 여선교사 후원으로 미국 테네시주 스카릿대학 신학부에 유학, 1926년 졸업한 뒤 귀국해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1924년, 1927년, 1940년 각각 세 차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장을 역임했다. 1935년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간부이자 교회·학교 건축가인 이명원과 결혼해 당시 한국 청년운동을 주도하던 YWCA-YMCA 활동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낳았다. 1931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6. 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대학·청년Y 회원들이 YWCA가 희망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각자 생각하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2016년 7월~8월 한국YWCA 주요일정

- 7월 25일 제2차 YWCA 여성주의 평화운동 현장 워크숍 (동해YWCA)
- 8월 1일~4일 제17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 8월 8일~12일 일본YWCA 히로시마 순례
- 8월 21일~24일 제9차 한일YWCA 협의회
- 8월 23일~24일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제52권 제6호 통권 532호

2016년 7월 22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목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청년운동 부활을 위한 선결과제 | 정유진
- 05 **말씀 묵상** '혐오'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하여 | 이숙진
- "YWCA 청춘에게 길을 묻다"**
- 06 **기획①** 2016년 대한민국 청년은 왜 불안한가 | 김원진
- 08 **기획②** 청주YWCA는 왜 '청년'에 주목하는가 | 이혜정
- 10 **기획③** 설문조사 : YWCA 청년 80.6% "희망 있다" | 편집실
- 12 **청년** 남북 청년·청소년의 아름다운 동행 | 편집실
- 14 **성 평등**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 조진경
- 16 **이달의 이슈①**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 | 김혜정
- 19 **이달의 이슈②** 제2의 옥시사태 소비자가 막는다 | 안정희
- 21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Y사랑을 향한 당신과 나의 이야기
- 24 **이달의 현장①** 4부 지역별 Y-틴 회원대회 | 천유란
- 26 **이달의 현장②** 2016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 | 이혜련
- 28 **이달의 현장③** 부산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 윤영인
- 30 **이달의 현장④** 마산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 박현주
- 32 **세계YWCA**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는 인도YWCA 에큐메니컬 운동 | 이지애
-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의심과 믿음 사이, 영화 '곡성' | 최대광
- 36 **연합회 소식**
- 39 **회원YWCA 소식**
- 47 **7월과 8월의 한국YWCA**

YWCA 청년운동 부활을 위한 선결과제



정유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위원장

한 때 한 대학의 대부분 여학생들이 대학YWCA 회원이었으며 대학Y 회장이 총학생회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가 있다고 한다. 젊은 회원들을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젊은 여성지도력을 배출해왔던 한국YWCA가 다시금 청년운동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어떻게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YWCA 청년운동 부활에 대한 논의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YWCA가 제32회 전국대회에서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대학Y운동을 모색하면서 ‘대학Y 활성화’를 위한 재건 3년’을 결의했고, 그 뒤 10년간 대학Y 회원조직에서 젊은 회원이 주체가 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다시 YWCA 청년운동의 부활을 꿈꾼다는 것은 좀더 숙성된 경험과 방법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논의와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현실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YWCA 청년운동의 부활을 위한 출발점에서 선결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전체 회원운동의 그림 안에서 구상해야 한다. 회원운동은 회원 개개인이 모인 ‘YWCA 공동체’라는 회원조직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동아리이기도 하고, 민들레모임이기도 하고, 한 두 사람이 모인 그 어떤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서 만드는 운동이 YWCA 회원운동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

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 회원조직 모델은 거대한 YWCA에서 맥락을 같이하여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 작은 단위의 회원조직간 이질감이 없다.

둘째, 그 공동체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기성찰과 삶이 투영되는 당사자 이슈에 기반하여 움직이게 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출발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는 청년 당사자 이슈에 기반한 청년운동으로 방향을 결의했다. 한국YWCA 중점운동으로 결정된 주제 역시 대학·청년 회원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재논의하여 회원 스스로 당사자 이슈의 맥락에서 소화해야 한다. 회원들은 회원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실어서 스스로 의미있는 회원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회원 스스로 성장하고 만족할 수 있다.

셋째, 한국YWCA 총회구조에 회원들의 작은 조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YWCA는 큰 그릇과 같아서 다양한 구성원이 수용되는 조직이다. 주요한 지도력 중에는 회원조직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개별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력이 많다. 서로 조화롭게 한국YWCA 운동을 만들려면 새로운 조직구상이 필요하다. 현재 조직구조에서 이질적인 부분은 드러내고 새로운 인식과 재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YWCA 총회구조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를 포함 각 회원조직이 주체가 되어 긴밀하게 하나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작업은 청년운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다. 

‘혐오’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하여

로마서 12장 13절~15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숙진 이화여대 초빙교수, 신학박사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그간 누적된 공포를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자라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기에 ‘여자라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두고 첨예한 성대결이 있었고 또 다른 젠더폭력으로 이어졌다. 한 여성의 추도 메모지에 적힌 ‘살아남았다’는 말이 대변하듯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시선과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상당한 온도차가 감지된 것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여성혐오(misogyny)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란 여성을 열등한 존재,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말들이 모여서 혐오의 문화를 만들고 그 혐오가 차곡차곡 누적되어 폭력으로 터져 나온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여성혐오로 분류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을 자신의 폭력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늦은 시간 나다니지 마라, 그런 옷 입지 마라, 행동거지를 조신하게 하라 등 권고로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혐오와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의와 사랑의 원칙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의의 원

칙’으로 차별적인 제도와 구조를 교정하고 개혁하며, 잘못을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는 ‘사랑의 원칙’으로 품어야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다. 그런 삶의 생채기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일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남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흉악범이라 해도 사실 안전망이 붕괴된 이 사회의 피해자 혹은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들을 악인으로 지목하고 낙인을 찍고 응징하려는 욕망에 휩싸이곤 한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한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평소에 낮선 이 대접하기를 힘쓰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보는 것이다. 즉 다른 이들의 삶에 함께 하여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공감해 보는 것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재차 생각해본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사람을 믿으라’는 구절은 없다. 사람은 유한하다. 그렇기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연민의 대상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 대면하는 그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하면서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2016년 대한민국 청년은 왜 불안한가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88만원 세대(2007년), 삼포세대(2011년), 헬조선과 흡수저(2015년). ‘청년문제’는 사실 닳고 닳은 주제다. 청년을 소재로 한 보도는 지난 한 해에만 30만건 쏟아졌다. 그런데도 청년을 또 다뤄야 하는가. 누군가는 지겹다고 했다. ‘한국에서 청년들만 살기 힘든냐’는 물음도 나왔다. 세대론에 빠지면, 세대를 관통하는 모순은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향신문 취재팀이 ‘청년’이란 주제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이 고통받는 현실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연령층이 20~30대다. 취재팀은 청년의 평범한 일상에 스민 비극성을 드러내고 싶었다. 극단적인 사례를 골라 아픔을 전시하듯 보여주기보다는 청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

“헬조선이 뭐예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여 떨어진 실업계 고등학교 한 곳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한 곳을 방문했다. 학교 운동장 모퉁이에는 200여 명에 가까운 취업자와 학생들이 입사한 기업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은 이름이 생소한 중소기업이었다. 교사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의 취업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고졸 청년들이 주로 향하는 중소기업 생산직 월급은 월 120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 수준이다.

실업계고 졸업을 앞두고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한 스무살 청년은 “헬조선이 뭐예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스마트폰으로 틈틈이 뉴스조차 챙겨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 실업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티고 버티다 관두고, 또 일자리를 찾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취재팀은 서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103명을 만나 그들의 고민도 들었다. “지역에서 태어나면 꿈의 가짓수부터 다르다” “취업 스테디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부부가 공무원이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 “이곳에선 ‘백수’도 직업”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시민단체조차 지역에는 없다”…



청년이 주제가 되고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YWCA 청년회원들

2015년 1월 1일 기준 스무살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나머지 93%의 스무살 청년 중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 아닌 청년들은 굳이 서울에 자리잡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역에는 청년들이 자생할 공간, 일자리,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역 청년들이 선택하는 곳은 결국, 서울이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취재팀은 전화로, 대면으로 청년 1500여명을 만났다. 취재 내내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청년문제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열악한 노동환경, 좁혀지지 않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수도권 중심주의, 주거난 등이 깔려 있다.

특히 심각한 양극화는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였다. 불안정한 60대의 30대 자녀가 빈곤층(소득 하위 40%)일 가능성은 21.41%였다. 반면 정규직·고용주 지위 등을 유지한 안정된 60대의 30대 자녀들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은 8.87%였다. 쌍봉낙타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솟은 형태여서 ‘쌍봉형 빈곤’이라 부른다.

한국의 고질적 모순이 응축된 ‘청년문제’.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다면, 인터뷰를 마친 후 청년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후련한 ‘표정’이었다. 일방적인 위로나 조언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거나 혹은 또래 이야기에 공감할 때 청년들에게서 ‘뭔가 바뀌고 싶다’는 주체성과 능동성이 감돌았다.

취재팀은 청년들이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 구속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회’에 대한 열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청년들의 이런 태도에 취재팀은 ‘지지 않은 마음’이란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강원도에서 만난 한 청년은 그 표현을 다시 고쳐줬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주어를 지금 청년들 삶에 대입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고, 너무 빨리 저버리는 것이죠. 지더라도 다 같이 있으면 패배의 상처를 덜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창간 70주년 기념으로 ‘부들부들 청년’ 기획시리즈를 실었다. 특별취재팀(박재현, 송윤경, 이혜리, 이효상, 정대연, 김서영, 김원진)이 4개월 넘게 1500여명의 청년들 목소리를 들었던 총 4부 17편의 기사는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YWCA는 왜 ‘청년’에 주목하는가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왜 청년이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 위험도는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나타나는데 청주YWCA는 왜 ‘청년’에 주목했는가?

우리는 지금 예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문명 전환기에 서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환경·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하인버그는 책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에서 우리가 알던 경제성장은 이제 ‘끝났다’고 단언한다.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파괴, 막대한 정부·민간 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사라진 시대는 분명하다. 기존의 성장방식이 수명을 다한 것이다.

이런 현실은 일견 암울하다. 청년들의 언어 ‘헬조선,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말은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청년들 뒤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조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양적 팽창과 성장 중독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

50주년 기념사업 ‘청년운동선포

청주YWCA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청년YWCA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청년운동을 중점사업으로 펼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이루어야 할 세상이 정의, 평화, 생명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청년임을 강조했다.

청주YWCA는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아카데미, 청년운동 심포지엄,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개관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독립공간으로서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생명평화콘서트 수익금으로 마련한 3,500만원을 설립자금으로 지원했다. 청년운동 활성화의 장기 목표는 ‘청주청년YWCA’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청주YWCA가 청년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청년들이 건강한 세계관과 여성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독교청년아카데미를 열었다. 제1기 주제는 ‘청년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로 모두 10강으로 구성됐다.

한국 교회의 현주소 등을 통해 기독교청년으로서 대안예수공동체를 고민해보고자 했다. 학벌주의, 청년 실업, 사랑과 결혼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한국 사회 문제도 짚어봤다. 청년들이 고민할 것 같은 주제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망라했지만 26명 수강생 중 8명이 수료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기독교청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꿈꿨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부담을 준 셈이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청년 인식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익숙한 조직 틀에서 청년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청년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말

이 나올 만큼 우리 스스로를 담보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청년들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고민을 어떻게 공유하는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로 했다. 그해 11월 ‘청년! 청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년을 만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청년 20명과 ‘정신적으로 젊다’고 생각하는 나이든 청년 5명이 만났다. 만남의 요지는 “청년들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더라, 청년들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 가더라. 이 엄혹한 상황에도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있더라”였다.

청년들에게 ‘YWCA가 무엇을 해주면 되냐고 물었던 게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청년들은 YWCA의 도움을 특별히 원하지 않았다. ‘청춘은 빛난다’ 혹은 ‘잉여인간, 삼포세대에 빠진 청년들’ 운운하면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언사들이 불쾌하다고 했다.

나이든 청년들은 울어버렸다

청년은 존재다. 규정받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다. 판단하고 단죄하고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의 연대’였다. 그 자리에서 나이든 청년들은 울어버렸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도 몰랐다. 너희들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사는 법을 모르겠다”는 기성세대의 고백은 청년세대와 소통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장학사업 모델로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도 가동했다. 단순하게 장학금을 주던 기존방식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꿈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20대 청년여성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청주YWCA 청년들의 동아리활동

로 1기 8명, 2기 12명의 청년들이 종자돈 100만원을 들고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섰다.

2016년 현재 청주YWCA는 여전히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오는 9월엔 2기 기독교청년아카데미가 열리고, 매달 한 번씩 청년들이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민을 나누는 집밥프로젝트 ‘이야기밥’도 열고 있다. 때로는 연애 등 생활 이야기부터 꿈과 진로 등 진지한 삶의 고민을 나누고 있다. 공정여행 동아리와 청청패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기행도 다녀오고, 철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묵직한 주제로도 만나고 있다.

실질 청주YWCA를 찾는 청년들의 발길이 늘고, 젊은 목소리가 들리니 참 반갑다. 청년운동은 어쩔 청년들이 변하는 운동이 아니라 중년의 기성세대들이 변하는 운동인 듯하다. 청년들이 지나온 길에 미련을 갖는 기성세대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안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문명이 가면 모퉁이를 돌아 길은 또 시작된다. 그 길은 공감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일, 청년들에게 그 몫과 자리를 돌려주는 일은 50주년을 맞이한 청주YWCA의 건강한 변화와 도전이다.

YWCA 청년 80.6%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30세 미만 청년 참가자는 총 109명. 전체 참가자의 13.5%를 차지한다. 이번 청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Y-틴 회원들과 대학청년Y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YWCA 청년운동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회의제, 청년인식, YWCA 청년운동에 대한 20개 항목을 물었다. 67명이 응답했다.

편집실

청년들이 살아있다

한국 사회 청년들은 희망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명제에 너무나 익숙해서 YWCA 청년들도 으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YWCA 청소년, 청년 참가자의 80.6%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달리 YWCA 청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 이들은 희망이 있는 이유를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10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 “우리 YWCA 같이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희망이 없다고 답변한 19.4% 응답자는 “우리

사회에 생명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없어서”, “공부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아서” 등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희망이 있어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참여하고 싶은 YWCA 활동 ‘국제교류 협력’

청년 이슈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은 ‘부정부패와 비리, 학연과 지연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될 것 같다’는 답변이 40.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의제로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44.8%)를 꼽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 분위기’(23.9%)보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 목표의식 부재’(40.3%)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저해 요소로 생각해 사회 구조적

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도 ‘여유로움’(17.9%)이나 ‘고소득’(4.5%)보다 ‘적성’(40.3%)을 중요하게 생각해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 진로와 관련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YWCA의 ‘Y’가 젊은 운동체를 뜻하는 ‘Young’이라는 것을 92.5%가 알고 있지만, 2016~2017 YWCA 정책과제에 청(소)년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73.1% 정도가 알고 있었다. YWCA가 청년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은 56.7%로 앞선 답변보다 그 수치가 낮았다.

청년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YWCA가 청(소)년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49.3%의 응답자가 ‘청소년,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던졌다. YWCA 청(소)년 운동에 바라는 점은 ‘부족한 의견들이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는 YWCA가 되면 좋겠다’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YWCA가 되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신선하고 젊고 자유로운 시선들이 있는 YWCA’,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기회가 있는 YWCA’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기대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YWCA가 펼치고 있는 청년운동을 ‘조직활동’(29.9%)과 ‘봉사활동’(26.9%)으로 인식했고, 앞으로는 ‘국제교류와 협력’(23.9%)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YWCA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역할은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설문 문항

1.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2.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3. 6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4.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5. (주관식) (있다면 혹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7. 일자리를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8. 한국사회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은?
9. 젊은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 의제는?
10.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은?
11. YWCA는 청년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12. YWCA의 ‘Y’가 젊은운동체를 뜻하는 ‘Young’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13. 2016~2017 YWCA 5대 정책과제에 ‘청소년, 청년운동’이 포함된 것을 아는가?
14. YWCA ‘청소년, 청년운동’의 목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연대하는 사회 만들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가?
15. ‘청소년, 청년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은 △YWCA 청소년운동 활성화 △청소년 대안교육 실천 △대학청년Y 주체성과 연대성 확립 △청년 당사자 이슈·정책 발굴과 대응인데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16. YWCA ‘청소년, 청년운동’ 중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활동은?
17. YWCA ‘청소년, 청년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8. YWCA ‘청소년, 청년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19. YWCA가 어떤 활동을 강화하면 ‘청소년, 청년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가?
20. (주관식) YWCA ‘청소년, 청년운동’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7월 15일(금)부터 20일(수)까지 6일간 67명의 청년, 청소년 회원들이 성실히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은 한국YWCA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볼 수 있다.

표1. YWCA ‘청소년, 청년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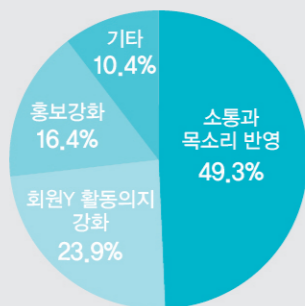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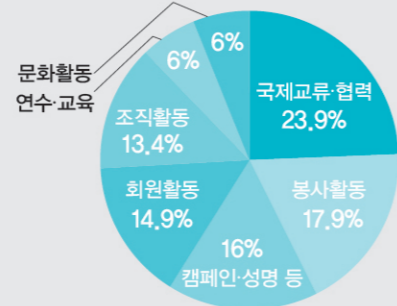


표2. YWCA ‘청소년, 청년운동’에 더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남북 청년·청소년의 '아름다운 동행'

- 부산·서울·충주·청주YWCA 프로젝트 눈길

YWCA 남북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 세상을 고민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실

미래 통일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31% 응답자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1% 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젊은 세대는 북한을 갈등대상으로 보고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도 문화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 남북 청년과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와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 충주와 청주 등 회원YWCA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YWCA 새터민청소년 평화통일기행

2016년 3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10~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인구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가 넘는 3,400여 명이다. 매일 일상의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 우리 사회에서 탈북 청소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부딪치고, 이겨내야 할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산YWCA는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위

한 행정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2005년 개소한 새터민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온 '한겨레 계절학교'는 방학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탈북 청소년을 1:1로 연결, 멘토링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해왔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새터민청소년 평화·통일기행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기행의 이름에 걸맞게 부산에서 출발해 파주, 제주로 이르는 평화통일기행을 8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예정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30명과 남한 청소년 10명이 참여하는 이번 기행을 앞두고 6차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아직 서먹서먹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근대역사박물관 방문에서 북에서 배우지 못한 일본 식민지배를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된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역사를 배운다는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오는 10월에 활동을 마무리하며 '남북청소년, 통일

에 대해 말하다'라는 미니 토론회를 열어 더 많은 시민들이 탈북 청소년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 지도력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예정이다.

서울YWCA '평화통일 Already Ready'

서울YWCA에서는 남북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미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이야기한다. 남북 청년 통일프로젝트 '평화통일

Already Ready'는 남북 청년을 나누어 선별하지 않고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평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이다.

4, 5월에는 활동을 시작할 남북청년 20명이 모여 서로 마음을 열어 친해지고,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리고 6월에는 4차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했다. 7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진행한 백두산 평화기행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했다. 또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방과후 교실 아동을 위한 영어캠프를 진행하며 평화감수성을 높였다.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피스톡톡'에서는 탈북 청년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북 청년이 꿈꾸는 미래 한반도를 이야기하며, 상호 공감의 깊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주YWCA·충주YWCA '한반도 평화 청년기행'

청주YWCA, 충주YWCA 대학청년Y 회원들은 평화감수성과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평화기행을 기획하면서 통일시대를 여는 미래세대 피스메이커



서울YWCA 남북 청년 통일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청년기행'은 대학청년Y 회원들이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기 위한 TF 구성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8월 예정된 청년 평화기행은 먼저 지역별로 '내 안의 평화, 우리 안의 평화'를 주제로 그리 거창하지는 않지만 개인과 YWCA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철원 국경선평화학교를 찾아 평화를 이루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청주YWCA는 청년운동을 중점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이 함께 모여 청년들의 평화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나 캠페인, 영화제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YWCA가 2016년~2017년 5대 중점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평화통일운동에 대해 회원YWCA 청년과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한 평화 감수성 높이를 바탕으로 탈북 청년, 청소년들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자리가 회원YWCA를 중심으로 더욱 많아지고, 젊은 세대에서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성매매 산업이 가상현실 세계에도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 시간과 공간, 연령 구분 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조진경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14세 소녀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범죄 집단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들 지배하에 두고 관리하면서 조건만남 형식으로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개인형 성매매로 인식돼 아동·청소년임에도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해 이런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14세 소녀 사건의 경우도 이 소녀를 알선한 범죄자 3명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뒤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던 그들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했다.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구매자와 조건을 합의한 뒤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살해된 소녀가 스스로 성매매를 했고 자신들은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선업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상 조건만남에 대한 사회인식이 거의 없거나 낮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개인형 성매매처럼 위장하고 범망을 빠져나간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을 경우 보호처분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알선업자들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거리 청소년들의 ‘패밀리’와 성매매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가출한 여자청소년 7~10명 중에 1명꼴로 성매매를 한다’는 언론보도와 연구자료¹⁾에서 알 수 있듯 위기상황에 처한 여자 청소년이 생존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집이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집을 나온 후에는 단지 생존을 위해 패밀리를 구성하려고 한다. 원가족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위적인 가족이라도 구성하려 하고, 또 그것은 약육강식의 거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힘센 아이의 눈치를 보고, 수족처럼 움직이고,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맞춘다.

2014년 일어난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도 이런 메커니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성인 성매수자 살해사건으로 그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이 은폐될 수 있던 것은 그 패밀리를 주도하는 힘센 사람이 성인 남성들이었다는데 원인이 있다. 성인 남성들은 아이들에 비해 훨씬 주도적으로 패밀리를 장악하고, 더욱 교묘하게 아이들을 조정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다녔다.

거리에는 이미 많은 패밀리들이 있고, 그 패밀리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안에서 학대받고 폭행당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패밀리는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인 성매수자들의 성매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집을 나온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법정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너무 적은 임금은 월세방조차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집을 나온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노동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 동의서가 없으면 취업할 수조차 없다. 집을 나온 아이들은 부모 동의를 받기 위해 부모와 연락할 일도 없지만, 어느 경우에는 동의를 써달라는 아이 말을 듣고도 듣는 체조차 않는 부모들도 있다.


‘성착취’ 청소년을 보호할 정책 필요

10대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을 사려는 성구매자들은 도처에 넘쳐난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조건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방을 만들어 놓으면 1분도 되지 않아 수십여 명의 성매수자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성매수자 입장에서는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단속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비용에서도 저렴하고, 집을 나와 떠도는 10대 소녀들이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안전에서나 양심상으로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성매매 제안을 할 수 있어 인터넷, 스마트폰 성매매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패밀리는 거의 성매매를 하면서 그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2014년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가해 소녀들도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10대 미성년자들의 모텔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그들이 장기투숙을 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모텔 관리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모텔 관리자들이 신고를 했더라면 소녀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학교와 가정에 국한된 현행 청소년정책의 편향과 한계, 인터넷과 모바일 상의 넘쳐나는 성매매 정보에 무차별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기술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전문상담소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마 같은 아이들을 옹호하고 사회나 제도에 그 문제를 돌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없다. 아이들은 단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성착취 당하는 대상일 뿐이다. 하루 속히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계간지 <오늘의 청소년> 통권265호에 실린 저자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성윤숙, 위기청소년과 인터넷성매매-그 현실을 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토론회, 2010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

김혜정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7월 5일 저녁 8시 33분경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주변 사람들은 원전과 관련된 아주 작은 사고에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월성과 고리 원전으로부터 각각 51km에서 6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원전밀집 울산 앞바다 잇단 지진

이에 앞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원전에 들어서는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울산 앞바다 지진이 일어나자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국내원전은 규모 6.5에서 6.9(신고리 원전 3호기부터 적용)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육지와 해상 등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가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부지평가 때 반경 8km만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지반경 320km 이내는 문헌조사로 대체했다.

이번 울산 앞바다 지진의 진앙지는 해양단층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도 해양단층이었다. 우리나라는 고리(신고리)원전을 비롯해 월성, 울진 원전 등이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양단층에 대한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조사자료도 없다. 해양단층 정밀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규모 6.9 이상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나마 후쿠시마 이후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3,4호기부터 6.9 규모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지만, 나머지 원전은 모두 6.5 규모로 내진설계를 했다.

세계에서 가장 지진대책이 뛰어나다는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규모 7.5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10미터 높이 방파제로 쓰나미에 대비했지만 9.0 규모 지진과 15미터 높이 쓰나미가 몰려와 원전 4기가 동시에 방사능을 내뿜는 대재앙이 벌어졌다.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와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해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를 설치할 위치 바로 밑에서 연약암반이 발견되어 원자로 위치를 50미터 이동했다. 하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러한 육상단층과 해양단층에 대한 정밀조사 없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0기 원전을 몰아서 짓는 나라는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로 4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가지 원인에 의한 다수호기(2기 이상) 원전의 동시사고 재앙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5월 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88개 원전부지에서 444기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다. 원전 2기가 있는 부지는 77곳(41%), 1기가

위치한 부지는 55곳(29%), 3기가 있는 부지 16곳(9%), 4기가 있는 부지 29개(15%)이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 부지(고리·한울·한빛·월성)가 해당하는 6기 이상 원전이 위치한 부지는 11곳으로 6%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부지는 원전밀집도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되면 고리원전은 세계 유일의 원전밀집 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 부지에 10기 원전을 몰아서 건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원전에서 태풍, 지진, 낙뢰, 산불 등으로 다수호기 원전이 동시에 정지한 사례가 26건에 이른다. 고리원전의 경우 1987년 태풍 셀마와 2003년 태풍 매미가 일어났을 때 송전선로 고장 등으로 고리원전 1~4호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된 사고가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다수호기 동시사고에서 유독 고리원전은 자연재해로 정지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원전이 가동되는데도 다수호기 동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건설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부지 반경 30km내에는 인구 380만명이 살고 있지만 원안위는 저인구지대로 평가했다. 저인구지대에 원전을 설치하도록 법을 정해놓았지만, 정작 고시에서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 부지에 원전 3기가 있는 곳은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 1개호기 사고에서 일어나는 방사선 영향범위에 따라 원자로 위치를 정하는 미국 기준을 세계 최대 인구밀집 지역에 10기 원


전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60년짜리 원전건설, 시민의견은 원천배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도 후쿠시마처럼 다수호기가 동시에 노심용융하거나 폭발하여 방사선을 내뿜는 사고는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했다. 구 소련은 1986년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30년 넘게 반경 30km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지금까지 원전에서 바람이 부는 서북방향 50km까지 피난지시를 하고 있다. 원전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8~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2014년 5월 우리나라 국회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원전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 이후 이 법이 개정되었다며 구법에서 정한 10km 이내 주민의견만 반영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구법은 자동 폐기되지만 원안위는 구법을 적용한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시민들 의견은 원천 배제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00년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이후 정부와 한수원이 5,6호기 건설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원자력산업은 추락을 거듭한 반면 재생에너지 부분의 신규 발전설비는 2000년과 2013년 사이 19%에서 58%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름철임에도 전기가 남아돌아 멸종한 발전기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물론 지금 세대 누구도 위험천만한 60년 수명의 원전을 추진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지역의 탈핵 열기를 더욱 뜨겁게!

2016 찾아가는 탈핵 캠페인

동해 2016년 6월 18일(토) 동해YWCA에서 찾아가는 탈핵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열리는 동해시청 잔디밭에서 회원들이 함께 탈핵부스를 운영했다. 동해Y-틴 회원들이 끼와 재주를 한껏 펼쳤고, 동해YWCA 회원들은 유난히 무더웠던 땀방아 아래서 시민들에게 '탈핵'을 설명하는 보드판을 통해 동해를 방문한 연합회 김경희, 김영자 실행위원과 함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울산 6월 2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한 이후 6월 28일(토) 울산YWCA에서 진행된 탈핵 캠페인은 탈핵을 향한 절박함이 더해진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합회 한영수 부회장과 문권희, 김기동 실행위원이 참석해 울산 YWCA 회원 30여 명과 함께 울산 시내에서 시민들을 만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외쳤다. 아직도 무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기를 업고 나온 엄마들은 특히 관심이 높았으며 더운 날씨에도 줄이어 서명을 기다렸다. 특히, 대학청년Y 회원들은 울동과 함께 전단지들을 나누어주며 서명을 받았다.



제2의 옥시사태 소비자가 막는다 -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2016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앞에서 열린 옥시제품 반품 기자회견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업 구조와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2011년 원인불명의 폐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기 시

작했다. 역학조사로 가슴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중간조사가 나왔지만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으로 그쳤고,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발생 5년이 지난 올해야 비로소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가슴기 살균제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로 신고된 사망자는 239명이다. 그러나 피해자 규모는 최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아이와 산모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더욱 건강하고자, 더욱 깨끗하고자 사용한 가슴기 살균제가 결국 소비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독극물이 되었다.

239명 죽음... 5년 뒤에야 전담수사팀 구성

한국YWCA를 비롯한 소비자·환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25일(월) 가슴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가슴기 살균제 불매’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인터넷과 SNS로 제조기업 처벌 촉구와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옥시제품을 상세하게 알렸다.

유통업체에 옥시제품 철수를 요청하고 유통매장의 판매실태를 조사했다.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소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결국 지난 6월 17일(금)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6월 20일(월)에는 이마트에서 옥시제품의 전점 철수를 결정하였다. 대형마트 3사가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환경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SSM 매장에서 옥시철수를 위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커머스에서도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서한을 보내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YWCA, 한국YM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0개 여성·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목) 대형매장에서 철수한 옥시제품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에 방문하여 반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한 옥시, 소비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소비자를 무시한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는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제2의 옥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알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자원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일어날 경우 피해자 중 일부 또는 한 사람이라도 다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결효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한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때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사회통념상 가해자의 불법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 기업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편의로 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 안전관점으로 개정하고 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YWCA는 소비자·환경·여성·교육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슴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뿐 아니라 가슴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소비자 최고의 권리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소비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가슴기살균제 사태에서 보여준 소비자의 힘을 계속 결집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고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다. 

Y사랑을 향한 당신과 나의 이야기

4년 만에 열리는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YWCA는 94년 역사를 통해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곳에 관심을 기울였고, 다양한 운동으로 실천해왔다. 그 중심에는 YWCA 목적을 우리 사회에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색 있는 수상자 이야기를 먼저 만나본다. 다른 수상자들의 사연은 전국회원대회 특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태임상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을 섬기는 리더십”
입국이 전 연합회 복지사업단 이사, 대전YWCA 증경회장**



1983년 입국이 대전YWCA 회장 시절

송제 문태임 선생은 1988년 연합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한국YWCA 발전에 공을 세운 연합회 지도자를 지원하도록 사재를 털어 2천만원을 기증했다. 문태임상은 송제 문태임 명예연합위원과 유가족이 후사한 기금으로 YWCA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자원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6년 문태임상을 수상하는 입국이 전 연합회 복지사업단 이사는 대전YWCA 증경회장 재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야간학당 설립으로 회고한다. 전후 혼란기 대학교 3학년이었던 임 증경회장은 구두 닦는 아이들, 집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돕고자 했

다. 당시 대전경찰서 후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79년 대전YWCA 회장이 된 뒤 이 일을 다시 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대전YWCA 야간학당은 1990년대까지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임 증경회장은 36년의 교수생활을 정리하고 연합회 복지사업단 이사로 재임하던 2005년 오사카YWCA로 떠나게 된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소개와 후쿠오카YWCA 도움으로 일본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오사카YWCA 샤론센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개월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루에 3시간씩 헬퍼(helper) 교육을 받고, 일주일에 두 번씩 노인들을 돌보며 매주 토요일 시설을 방문해 설거지까지 도맡아했다.

임 증경회장은 YWCA 활동 40년을 “더불어 함께, 힘들고 외로운 절벽을 기도로 넘어 비로소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모든 축복은 오로지 행함에서 비롯된 진정한 섬김정신임을 보여준 것이다.

40년 봉사상

**“가족 13명이 YWCA 평생회원”
강난파 제주YWCA 증경회장**

강난파 제주YWCA 증경회장은 “어떤 예금증서나 적금보다 YWCA 평생회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자세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대물림”

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아들과 남자 손주들은 제외하고, 며느리와 여자 손주들만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주었다. 그런데 남자 손주들이 평생회원패를 정



제주YWCA 강남파 증경회장과 가족들

말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여 부군을 시작으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까지 지금은 13명이 모두 평생 회원이다.

강 증경회장은 가족들이 모두 YWCA에서 함께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만 드러나는 것 같아 때론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 지도력이 없어 고민하던 제주YWCA에서는 강 증경회장의 가족들이 젊은 회원이자 평생회원으로 들어오니 한결 안심이 되었다. 그야말로 평생 함께 하는 제

주YWCA의 가족인 것이다.

강 증경회장은 1974년 제주YWCA에 발길을 들여놓으며, 제주YWCA 어린이집 원장으로 10여년을 활동했다. 강 증경회장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집 졸업생 원아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드는 비용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작한 일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장학금을 넣어주고, 큰 아들도 뜻을 이어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강 증경회장은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은 없지만, 계속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귀한 것을 내놓는 삶은 YWCA를 빛내는 봉사정신 그 자체다.

30년 근속상

“YWCA 사절을 붙여놓던 딸, 홍보사절 되다”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1994년 대구YWCA 일하는여성의집개관식에서 박선 사무총장(아래 오른쪽)

1984년 대구YWCA 무료직업안내소 담당 상호협조부 간사로 YWCA 활동을 시작한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은 어느덧 50대를 맞았다. 청춘을 YWCA와 함께 보낸 박 사무총장에게 삶의 전부였던 YWCA. 그러나 5살밖에 되지 않았던 큰 딸에게 YWCA는 ‘엄마를 빼앗

아가는 곳’이었다. 글자를 겨우 익힐 무렵 큰 딸은 뽀뽀뽀한 글씨로 대문 앞에 ‘YWCA 사절’이라고 써붙였다. 늘 이모나 할머니와 소풍을 다녀야 했던 큰 딸의 소원은 ‘엄마랑 대낮에 어묵 사먹기’였다.

딸 정신경 씨가 YWCA에 대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과서에 나온 YWCA를 접하면서부터였다. 담임 선생님이 YWCA는 훌륭하고 좋은 단체이고, 엄마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하니, YWCA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친구들과 앞에서 YWCA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고, 가족 캠프와 합창대회 등에 적극로 참여하며 모녀가 함께 하는 YWCA로 전환을 맞이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큰 딸은 2012년 한국YWCA와 인도YWCA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스프 1기’ 참가자로 두 달간 인도에 다녀온 뒤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인도YWCA 회장 모녀가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소원은 “엄마와 함께 YWCA 지도력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 1년간 모은 돈으로 대구YWCA 평생회원에 가입했다. 박 사무총장의 세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21명이 모두 대구YWCA 회원이다. 그중 평생회원이 5명이고, 위원과 EM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는 삼남매를 떼어놓고 도망치듯 출근하던 박 사무총장은 지난 30년의 긴 세월동안 자녀들보다 YWCA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왔다. 가족들은 박 사무총장의 YWCA 사랑에 동참해주었고,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회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박 사무총장이 YWCA를 사랑하고 섬겨온 이야기이다.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
전국회원대회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8월 23일(화)~24일(수) 1박2일
- 장소 : 경주 The K-Hotel(더 케이호텔)
- 대상 : 52개 회원Y 대표 1,000명, 일본Y 대표 15명
- 제9차 한일YWCA협의회 ‘한일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 2016년 8월 21일(월)~25일(목)

*자세한 내용은 전국회원대회 특별홈페이지(www.ywca1922.or.kr) 참조

	8월 23일(화)	8월 24일(수)
오전 7:00~8:30		아침식사
8:30~11:30		비전 한마당 Y목적 이해 '1080' 희망잇기 비전공유 퍼포먼스
11:30~12:00		결단과 파송 YWCA 회원선언 회가 합창
낮 12:00~1:00		점심식사
오후 1:00~2:00	등록	
2:00~3:00	여는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말씀선포, 찬송
	개회식	
3:00~5:30	감사 한마당	시상식, 축하와 감사 찬양 94분 토크쇼: Herstory&her-story, 기념촬영(회원퍼포먼스)
5:30~5:50	회원 퍼포먼스	Y.W.C.A 글자 만들기 탈해메시지 퍼포먼스 드른 기념촬영
5:50~7:20	저녁식사	
저녁 7:20~9:50	나눔 한마당	찬양으로 하나되는 시간, 지역별 활동나눔, 영성으로 하나되는 시간

희망 YWCA
세상
Creating Hope For The World

지역에 퍼져나가는 평화의 메시지 - 4부 지역별 Y-틴 회원대회,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Y-틴 전국협의회는 올해 Y-틴 회원들이 함께 활동할 중점운동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로 정했다. 7월과 8월에 4부(중부, 동부, 서부, 북부) 지역별로 Y-틴 회원대회를 열어 지난 6개월간 회원YWCA에서 활동한 성과를 나누고, 하반기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천유란 한국YWCA연합회 간사

반세기도 더 지난 일본군 '위안부' 이슈. 2016년 오늘을 살아가는 YWCA 청소년회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특히 지난 5월 경주에서 개최된 유엔NGO컨퍼런스는 여러 회원YWCA에서 참석한 Y-틴 회원들이 자신들 목소리로 중점운동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현해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7월 16일(토) 중부지역 회원대회에 참가한 Y-틴 회원들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Y-틴 회원들은 상반기에 스스로 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울 Y-틴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학습하기 위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탐방을 다녀왔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과 아동들의 상황을 마주하고, 여성인권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 Y-틴은 SNS를 활용해 역사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페이스북으로 공모했다. 이슈가 다소 무거워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YWCA Y-틴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알리는데 역할을 했다. 공모에서 가장 공감을 받았던 작품으로 부채를 만들어 중부지역 회원대회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각 회원YWCA에서 진행한 상반기 활동을 한 자리에 모여 공유하고 격려하는 장이 지역별 회원대회다. 지역별 회원대회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7월 16일(토) 중부지역, 7월 29일(금) 동부지역, 8월 5일(금) 서부지역, 8월 13일(토)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연합의 자리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직접 실행

하여 Y-틴으로서 역량을 확인하며, 나아가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이기도 하다.

지역별 회원대회를 통해 하반기에도 회원YWCA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회원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열정이 한층 높아지는 지역별 회원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부 평화는 우리 안에 있다

7월 16일(토) 청주 북문교회에서 지역별 회원대회 시작을 알린 중부지역 Y-틴 회원들. 가장 빨리 알차게 준비해 왔으나 당일 예기치 않은 폭우로 프로그램이 전면 변경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겼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여러 가지가 염려되었으나, 오히려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중점운동 이슈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것은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가 묻고 답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Y-틴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동부 사람과 역사를 통해 평화를 알아간다

7월 29일(토) 대구에서 열릴 동부지역 회원대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전문가를 만나 시대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 이용수 할머니와 대화를 통해 Y-틴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할지 배운다. 또한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와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견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역사를 더 직접적으로 사람과 이야기를 만나 역사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서부 천천히 그러나 강한 발걸음으로

8월 5일(금) 목포에서 열리는 서부지역 회원대회는 Y-틴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알아가고자 한다. 특히 12.28 일본군 '위안부' 한일정부 합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서 도출한 결과로 각 회원 Y-틴의 하반기 활동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Y-틴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의미 있는 발자국이 남겨질 것을 기대한다.

북부 지역에 퍼져나가는 평화의 메시지

지역별 회원대회 마지막 주자인 북부지역 회원대회는 8월 13일(토) 성남에서 열린다. 각 회원YWCA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즐거운 방식'으로 알리고 싶다는 북부지역 Y-틴. 청소년 회원들이 준비하여 더욱 기대된다.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이슈를 확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부지역의 즐거운 평화운동은 온라인에 올리는 플래시몹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면 너도나도 따뜻한 성장

이혜련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 팀장

사회적기업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뿐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나눔, 공생의 가치가 확산되면, 그 효과는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으로 이어진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1년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유관단체 등을 주축으로 민관협의체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네트워크 창립 회원단체로서 준비 단계부터 적극 참여했고, 2014년부터는 사무국을 맡아 직접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돕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힘쓴 공로로 한국YWCA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7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뿐 아니라 YWCA는 현재 9개 사회적기업(광주, 목포, 순천, 안산, 여수, 제천, 청주, 충주, 통영)과 2개 생활협동조합(부산, 청주), 2개 일반협동조합(부천, 성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가치 확산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출범 후 우수 사회적기업을 찾아내 키우는 일을 우선으로 진행했

다. 2014년부터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제정해 해마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가를 격려하고 있다.

제1회 수상기업인 ‘행복도시락’은 지역사회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결식이웃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민간기업과 지역 시민단체, 지방단체, 정부의 협력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전국 21개 지점을 갖추고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더 이상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영세한 기업이 아닌,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적기업의 올림픽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강원네트워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력해 강원지역 사회적기업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도시락을 개발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 선수단 또는 관중들에게 강원도 사회적기업이 지역 특색을 살려 제작한 도시락을 제공 하자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 는 올림픽 정신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직결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을



통영YWCA 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쳤다.

이들은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같은 중간 지원 조직과 협력해서 협찬사인 코카콜라, 달로이트, 맥도날드 등 대기업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올림픽이 거대 기업의 잔치가 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위한 유산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기업과 평창동계올림픽의 만남이 ‘사회적경제올림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 주부를 기업인으로 변신시킨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활동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청주YWCA 사회적기업 ‘올리’와 통영YWCA ‘민들레누비’가 대표적이다.

평소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던 청주YWCA 회원들이 유기농 두부와 햄버거 콩패티 등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다 콩패티로 만든 올리버거를 선보이면서 사회적기업 ‘올리’가 탄생했다. 인근 충주YWCA와 제천YWCA도 사회적기업 ‘올리’를 설립해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통영YWCA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안정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한글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석이 잦아 통영YWCA는 이들에게 통영 지역특산물인 누비 재봉기술을 가르쳤다. 결국 누비생산 작업장까지 갖추면서 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가 만들어졌고, 이주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성들의 고민과 관심도 사회적기업 창출로 이어진다. 결혼과 육아로 7년간 경력단절 기간을 보낸 이향숙씨는 대학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손글씨 강사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때 만난 주부 수강생들과 함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기업 ‘한글피움’을 만들어 한글디자인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주얼리 공예로 사업을 확장해 경력단절 여성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글피움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상품개발로 시장을 확장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제1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수익창출보다 사회공헌과 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시각이 사회적기업 정신과 맥이 닿아 있어 한글피움 같은 사회적기업 설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7월 첫째 주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면 너도나도 따뜻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3개 지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공유경제 가치를 알리는 시민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네트워크별로 지역 사회적기업을 알리기 위한 ‘너도나도 우산’ 무료대여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부산YWCA '살리기 운동' 70주년 -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을 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부산YWCA가 지난 7월 5일(화) 창립 7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의 다짐을 선포했다.

운영인 부산YWCA 간사

전쟁과 분단으로 암울했던 시절 20명의 여성들이 모여 부산 최초의 기독교 여성 민족운동, 생명과 평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시작했다. 1946년 7월 1일 부산YWCA가 창립한 것이다.

양한나 초대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와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그리고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부산YWCA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금의 여성운동 단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16년 7월 5일,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신관우 부산YMCA 이사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회원YWCA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내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년의 여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동역한 부산YWCA 자원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렸다

1부 기념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부산YWCA 합창단의 찬양과 회원 대표의 예배문 낭독에 이어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살림의 역사'라는 주제로 부산YWCA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박 목사는 성경의 '출애굽기'를 인용해 "이름 없는 여성 산파들이 살린 모세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부산YWCA의 평범한 여성들이 살리기 운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가 열거한 부산YWCA 살림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50년 한국전쟁 중 뉴욕YWCA와 UN의 후원을 받아 급식활동으로 피난민 아이들 먹여 살렸다. 1957년 버스 여차장들에게 학원을 열어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살렸다. 1996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해외교육'을 실시해 인생이 힘들어 살고 싶지 않고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살렸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비자개발센터를 개설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약자를 살리는 일에서 지금은 안전, 환경, 에너지까지 살리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뛰어들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주도하고 마침내 2015년 노후 원전인 고리 1호 폐쇄를 이뤄내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살렸다."

이어 박 목사는 "부산YWCA는 언제나 시대요청에 응답하고, 끝없는 도전과 변화를 시도한 멋진 단체"라면서 "Young의 진취적 기상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여

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살림의 역사, 살림의 역할이 통일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 탈핵을 향한 실천

성인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에서는 Y-틴 청소년들의 목적문 제창과 70주년 기념영상을 감상하고 부산YWCA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선규 부산YWCA 회장은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품고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탈핵을 향한 실천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안팎의 격려와 축하도 이어졌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70년 동안 부산YWCA를 인도해 주시고, 100년을 향한 비전을 새롭게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국 52개 YWCA와 10만 회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부산YWCA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금 힘찬 행진을 시작하는 발걸음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며 건승을 기원했다.

생명살림을 향한 용기는 계속된다

부산YWCA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관심은 언제나 우리 사회 약자들을 향해 있었다.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에서 어르신들과 새터민들로 확대됐다. 때로는 뜨거운 청년의 열정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기



부산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합창단 공연

위해 묵묵히 70년의 길을 걸어왔다.

소비자운동이 그러했고, 땅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 그러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 땅의 리더로 키우는 일, 여성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하며 여성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도 그러했다.

탈핵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 일이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향한 생명살림의 길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앞장설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에는 부산YWCA 회원과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온 수많은 자원활동가가 있었기에 생명살림의 가치를 YWCA 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부산YWCA 70년의 여정을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기관으로 쓰임받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여성운동단체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생명, 정의, 평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천하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의 다짐을 품고 선포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 인권과 직업훈련에 앞장선 마산YWCA 50년

경남지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직업훈련에 앞선 마산YWCA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7월 21일(목) 기념식을 열었다.

소비자운동은 인권운동이다

한국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반을 닦고 있던 근·현대 시기, 민주화의 성지 마산에 1966년 7월 20일 이봉희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하여 마산YWCA가 창립되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겠다는 결단과 소망으로 성장해온 마산YWCA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정의·평화·생명 살림을 위한 운동을 사명으로 펼치며 반세기를 지나온 마산YWCA는 희년의 50년을 맞으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능했음을 고백한다.

마산YWCA는 설립 초기 여성능력 향상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호, 성인 계몽운동에 주력했다. 1966년 8월에는 제일여고 Y-틴 클럽 '시나브로'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당시 Y-틴은 어린 손길들이 모여 3·1절 정신 고취를 위한 거리방송과 방문홍보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여성능력 향상과 성인계몽 활동을 위해 음악회를

박현주 마산YWCA 사무총장

열어 여성이 남성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로설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여성 정체성과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미용법, 계량기 바로보기, 재단법, 꽃꽂이, 요리 등 강습반 운영을 시작했다.

1971년부터는 소비자 보호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마산시내 초등학교에 어머니 교실을 열어 부정식품 배격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비자 운동은 인권운동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 YWCA 상담실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했다. 소비자 보호 지도자 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본격적으로 소비자 모니터활동도 시작했다. 아울러 각 중·고교 대학지도 교사와 상담교사, 학생간부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여성의 인간화 운동과 근로여성 복지사업

마산YWCA 초기 중점운동 주제는 '여성의 인간화 운동'이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서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능력을 강화해 자기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왔다. 이때부터 마산YWCA는 여성의 동등한 법적·제도적 참여, 관습·의식·사고방식 속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 자존

감 향상과 사회의식화 사업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1970년 설치된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마산YWCA와 가까운 데 있었고, 당시엔 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산업 단지였다. 그곳에는 많은 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노동상담과 교육, 자기계발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마산YWCA는 근로여성 복지사업으로 찾아가는 근로여성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마산YWCA 회관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직장 상사를 초청해 '상사와의 만남과 이해'의 자리를 주선해 여성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근로여성 상담실을 운영해 가정문제, 직업과 진학, 이성, 보건, 법률문제 등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 최초 여성도배공 배출하다

더불어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근로자들을 위해 야간 중학교를 열어 중단했던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1900년대까지 운영된 야간 중등부와 고등부의 시초가 되었다.

나아가 마산YWCA는 한국사회 구조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펼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였고, 무료직업 상담소를 열어 여성직업 개발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직업 개발에 대한 도전으로 한국 최초 여성도배공 훈련사업을 실시했고, 1988년도까지 훈련과 파견을 지속하였다. 위생적인 가정생활, 신생아 돌보기, 손님접대와




2015년 마산YWCA 회원의 밤

예의범절 등 파출부 훈련과 파견 사업은 '돌봄과 살림' 사업의 시초가 되어 현재의 가사·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후 시대와 사회 변화 속에 마산YWCA의 주력 사업은 다양하게 변천했으나 설립기반이었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대한 결단과 소망은 변함없이 마산YWCA의 이정표가 되어 그 뿌리가 되고 있다.

희년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소서

반백년을 하나님 은혜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마산YWCA는 2016년 7월 21일(목) 창립 50주년 감사의 기념식을 하고 다시 새로운 50년을 시작한다. 50주년 기념식을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공동기도문으로 1년간 마산YWCA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매주 공동의 기도를 했다. 이어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돌봄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생명사랑과 존중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레위기 25:12) 말씀과 같이 마산YWCA 모든 회원들이 희년의 거룩함에 감동하고 숙연해하며, 안으로부터 서로 위하고 하나가 되어 더욱 더 순종하고 섬기는 마산YWCA가 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의 시간'을 기쁘게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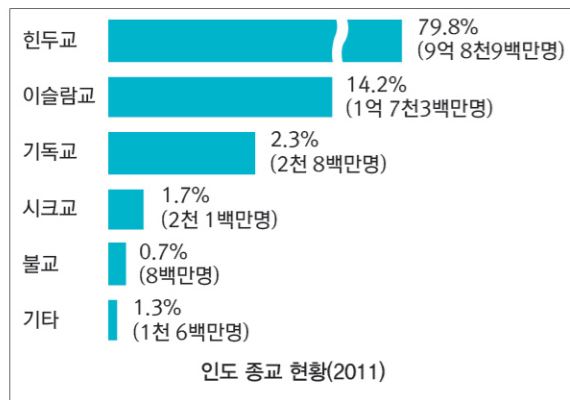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는 인도YWCA 에큐메니컬 운동

한국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세계에는 국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와 아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있다. 기독교가 소수인 국가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펼치는 YWCA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한두교가 다수인 인도YWCA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만나본다.

이제야 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 인턴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인도

2011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Census Data) 조사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약 10억 인구 중 79.8%는 힌두교, 이슬람교는 14.2%, 기독교는 2.3% 등으로 힌두교 인구가 압도적이다. 2,8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종교차이로 인한 핍박은 상상 이상이다. 특히, 최근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 소수 종교를 포함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NGO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¹⁾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기독교인 탄압 정도는 극심해 미얀마, 사우디아라

비아, 예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다시 힌두교로 되돌리기 위한 박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인 달리츠(Dalits)에 해당하는 3억의 인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심지어 종교생활을 향유할 권리마저 제한받고 있다. 인도 기독교 인구 중 70%는 하층 힌두 카스트 집단이거나 인도에서 소외된 계층이 주를 이룬다. 인도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과 교육, 구직의 어려움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YWCA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도YWCA

인도YWCA는 1875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믿음”을 바탕으로 설립돼 141년이 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86개 회원YWCA와 7천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YWCA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인도YWCA의 비전은 계층으로 나뉘어 있고 가부장적 제도를 가진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 직업, 계층, 종교를 가진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YWCA 내에서도 계층과 카스트를 초월하는 조직을 이루고자 힘쓰고 있다.

인도YWCA는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자율권과 연대를 높이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이 인도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각 지역 YWCA에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인도YWCA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인도YWCA 제공)

여성 폭력, 더 이상 안 돼!

최근 인도에 관한 뉴스는 여성폭력에 관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2012년 여대생의 귀갓길에 일어났던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최근에는 3년 전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불가촉천민’ 신분 여대생이 같은 가해자 5명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시대는 흘렀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중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 살인, 신부 지참금에 관한 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여성폭력이 만연하다.

인도 사회의 폭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 주로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도YWCA에서는 여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카스트나 종교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힘쓰고 있다.

인도YWCA는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는 인도YWCA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기독교 배경을 갖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다 보니 종종 YWCA 활동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인도 전체가 어떤 그림이든 그려나갈 수 있는 ‘흰색 천’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종교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며 일하고 있다. 인도YWCA 안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활동가들도 함께 신뢰와 존중을 표하며 활동하고 있다.

인도YWCA연합회 총무 니샤 샤르마(Nisha Sharma)는 한국YWCA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요청해왔다.

첫째, 인도YWCA에서 하고 있는 운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인도 사회의 모든 계층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YWCA와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굳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YWCA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섬김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YWCA를 통해 인도의 여성들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1) www.opendoorsusa.org

의심과 믿음 사이, 영화 '곡성'

영화 '곡성'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반대편으로 틀고, 여기에 사머니즘을 호러 효과와 결합하고 있으며, 한일간 민족 대립까지 섞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그 중 하나임을 먼저 밝혀둔다.

최대광 정동제일교회부목사

한 것뿐이다. 이 영화에서는 귀신과 마귀가 뒤섞이며 나타난다.

『풍성한 곡성』에서 『통곡의 곡성』으로

곡성은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은 풍성한 곡식이 나오는 전라도 곡성(谷城)이었지만, 죽은 사람 가족들의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곡성(哭聲)이 된다. 아름다운 풍광과 조용한 아침,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었지만, 이내 잔혹한 살인사건이 꼬리를 문다. 사건에 당황한 경찰과 마스크를 마을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독버섯을 먹고 서로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점점 경찰관 가족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는 합리적 세계관을 떠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주인공 종구의 딸 '효진'(김환희)까지 악령에 붙들리자 종구의 어머니는 무속인 일광(日光), 곧 일본의 빛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름이 이런 이유는 악마로 마을주변을 배회하는 마귀인 일본인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일광은 일본인들이 입고 있는 속옷 훈도시를 입고 있으며, 일본인의 집 벽에 붙어 있던 살해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제자에게 효진을 장악한 악령을 물리치는 곳을 청한다? 말이 안되지만, 영화는 이를 기독교의 뼈대를 뒤틀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물적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이고,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긴 배반자이지만,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예수를 배신한 적이 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붙들려 갈 때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영화에서 경찰 종구는 닭이 세 번 울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선한' 귀신 무명의 말에 '의심'하여 집에 들어간다.

이때 종구는 가족 식구들 모두 악령이 들린 딸에게 죽은 것을 보며 오열한다. 의심했던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후 오열하는 모습이다. 박수 일광은 일본인의 제자인 것 같지만, 가롯유다와 같이 거액의 돈을 받고 굶판에서 일본인 마귀에게 살을 날린다. 십자가와 같은 나무에 대못을 박으면서 말이다. 제자가 던질 '살'에 일본인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듯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어디론가 도망을 한다. 영화의 주변부에서 점차 중심으로 들어오는 '무명'이라는 귀신 때문이다. 무명은 종구와 성복이 살해현장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 발 앞으로 낫 나간 모습을 하며 돌을 던진다. 그리고 종구에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거대한 나무 밑에 돌이 쌓여 있는 성황당이 있다. 마을의 수호신인 '귀신'이다. 돌을 던진 그 무명이라는 여인은 성황당의 주인이다. 곧 마을을 지키는 귀신이다. 종구는 일광의 굶으로 딸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실패하자 친구들과 함께 일본인을 직접 처단하러 간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들이 타고간 트럭에 치어 죽는다. 마귀인 일본인은 무명에게 쫓기다 언덕에서 떨어져 트럭에 치어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마귀는 죽지 않고 3일만에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임을 선언했다면, 일본인은 부활하여 마귀임을 선언한 셈이다. 영화의 끝 장면에서 마귀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며,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하면서 못박힌 상처가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준다. 일광이 날린 '살'의 표시다.

배반했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부활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가롯 유다처럼 일광은 일본인을 배반하여 살을 날렸지만, 그를 마귀로 부활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일광은 그 일본인이 마귀가 아니고 무명이 마귀라면서 종구를 속인다.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을 하며 의심을 더 크게 퍼뜨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했지만, 마귀는 인간의 의심과 공포를 먹고 부활한 것이다.

『믿음, 선, 사랑』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영화의 구조는 "믿음=선 vs. 의심=악"이라고 했다. 이 도식을 화살표로 다시 만들어 본다면 "믿음→선 vs. 의심→악"이다. 믿음은 선을 낳고, 의심은 악을 낳는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의심→악→살인과 공포"다. 영화 내내 의심이 악을 만들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살인을 만들고 이로써 공포를 만들어낸다. 곧 악이 낳은 공포가 죽은 악마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의심이 낳은 악과 그 공포는 인간을 악마로 만든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 "믿음→선→사랑"이다. 믿음이 커져 선이 될 때 마침내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 종구는 믿음의 자리에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 효진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재미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영화 '곡성'의 한 장면

영화의 서두에는 누가복음 24:37~39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데, 영화 전체를 포괄하는 열개인 듯싶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곡성은 이 구절을 풀어 믿음을 선(무명 : 천우희)으로 의심을 악(일본인 : 쿠니무라 준)으로 대립시킨다. '믿음 = 선 vs. 의심 = 악'이라는 구조다.

그리고 선과 악,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하는 경찰관이자 효진의 아버지인 종구(곽도원)가 있고, 악의 편이면서 선의 편인 척 하는 박수무당 일광(황정민)이 있다. 참고로 성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죽은 자의 혼이라는 '귀신'의 개념이 없다. 성서에 나오는 '귀신'은 마귀(devil)나 사탄(satan)을 '귀신'으로 번역

7월 월례 아침 기도회



7월 YWCA 월례 아침 기도회가 7월 7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숙진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로마서 12장과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우리 사회 혐오를 끊어내기 위해 타인을 축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에 있을 YWCA 전국회원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이 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했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장마철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서울 명동 연합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6월 14일(화) 113차 캠페인은 광주YWCA가 주관했고, 7월 5일(화) 116차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충주YWCA가 캠페인을 주관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했다. 7월 5일(화) 발생한 울산 5.0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 사고의 경각심을 깨우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명을 받았다. 7월 4일까지 누적 집계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청원을 위한 YWCA 서명은 1만 3,658명이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연대

하여 8월 중 제안서와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에너지 워크숍



6월 30일(목) 전국 14개 회원YWCA 실무자, 이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YWCA 에너지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 탐방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130kw)을 설치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공용전기료를 절약하는 사례, 미니태양광(200w)을 설치한 가구의 계량기 숫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사례를 관찰했다.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아파트(서울 동작구)를 둘러본 뒤, 2016년 에너지 전책 전망과 지역 에너지 전환 자립을 주제로 기초강연(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지역 에너지 정책 모니터링 방법과 정책 만들기 워크숍(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서울시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강의를 이어졌다. 뼈뺀 일정 가운데 참가자들의 과제 준비와 발표, 적극적인 참여로 전체 일정을 알차게 마무리했다.

길위의 평화학교 연구모임 '통전적인 평화를 생각하다'



'통전적인 평화를 향한 나/우리의 과제'의 주제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강남순 교수의 강연이 7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공개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연합

회 위원, 실무자와 종교인, 일반시민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강 교수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평화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는 자세로 정치, 사회, 종교와 윤리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통전적인 평화(Holistic Peace)'라고 설명했다. 열정적인 강의와 청중과의 소통으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된 이날 참석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연민과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2016 직업훈련 담당실무자 워크숍

6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회원YWCA 직업훈련과 앞선담당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돌봄산업 현황과 전망(윤정향 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과 NCS(이은영 위원), 2016~2017 돌봄정의운동 정책 현황과 과제-부천Y의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설립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워크숍은 급변하는 돌봄노동시장 변화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6월 16일(수) 제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 80여 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지속가능발전' 모색



2016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6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2박 3일간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변원정 사무국장의 특강과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운

동의 과제를 고민했다. 조은영 연합회 실행위원이 진행한 비전 워크숍에서 전국 사무총장들은 함께 YWCA 100년을 바라보며 비전을 나누었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6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1박 2일간 대전YWCA와 계룡산에서 잇따라 열렸다. 회원Y 대학·청년Y를 대표하는 13명 운영위원과 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정유진 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대전YWCA에 모인 청년들은 유덕순 대전Y 사무총장의 '대전YWCA 소개와 YWCA 목적문' 강의를 듣고, 자신의 삶에서 목적문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나누었다. 2016 전국회원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제2차 대학·청년위원회 회의를 한 뒤 계룡산으로 이동한 운영위원들은 권부남 대전청소년위센터장의 진행으로 대학·청년Y 미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나눔과 연대로 청년이 행복한 세상, 경험과 배움으로 청년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대학·청년Y 미션을 만들고, YWCA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가정폭력·여성폭력 시설장 간담회

6월 24일(금) 세종 성인권 상담센터에서 한국YWCA 가정폭력·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전국 14개 회원Y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쉼터 시설장과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희경 세종YWCA 사무총장, 임영이 세종YWCA 상담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YWCA 여성폭력예방 운동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다양한 여성폭력 이슈와 관련해 앞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시설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Y-틴 지도교사 워크숍



2016 Y-틴 지도교사 워크숍이 7월 13일(수) 연합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Y-틴 지도교사, 지도자, Y-틴 간사 등 9명이 참여해 Y-틴 지도교사와 실무활동가의 역할을 재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Y-틴 지도교사들은 교내 동아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쉽고 환경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도교사간 연대감을 키우고, 앞으로 교사모임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YWCA 청년기자단 'Y러너' 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의 눈으로 한국YWCA 활동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로 발빠르게 전하는 한국YWCA 청년기자단 'Y러너' 1기 오리엔테이션이 7월 2일(토) 서울 명동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대학·청년Y 회원 5명과 일반 청년 3명으로 구성된 1기 기자단은 SNS 홍보 플랫폼 이해 강의를 듣고, 기자단 운영 계획, 7월 취재일정과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발로 뛰어 취재한다'는 뜻을 담은 'Y러너' 1기 기자단은 6개월간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YWCA를 친근하고 젊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취재로 YWCA를 홍보할 예정이다.

옥시불매운동 "의약품도 사지 않겠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저 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불매운동이 3차 행동으로 확대되었다. 7월 19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저 본사 앞에서 '3차 불매운동 행동선언식'을 개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옥시 불매운동 성과를 보고하고 옥시의 책임 있는 제품 반품행위를 촉구했다. 특히 옥시 의약품인 '개비스콘' '스트랩실'을 불매대상에 포함할 것을 선언하고, 양심적 약국들이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옥시제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양심 있는 중소기업가게에 '옥시제품 불매운동 선언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YWCA 등 10개 여성·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동정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선임 (2016. 8. 24) · 강교자 명예연합위원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이사장 선임 (2016. 5. 26) · 차경애 명예연합위원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취임 (2016. 5. 21) · 이숙진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대한민국 희망소리 대상' 장애극복 부문상 수상 (2016. 6. 4) · 김태련 후원회 이사
채용
· 이지윤 지역운동국 협력사업팀 간사 (2016. 6. 7)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응답하라! 강릉YWCA' 회원대회



7월 5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강릉중앙감리교회 체육관에서 '응답하라! 강릉YWCA' 제28회 회원대회를 열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개회선언, 회원증 모현황 보고, 레크리에이션과 조별패션쇼, 경품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

6월 18일(토) 동해시청 잔디밭 광장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를 열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능과 특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2016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울YWCA는 2009년부터 유한김벌리와 함께 해마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열고 있다. 올해는 6월 18일(토)과 25일(토) 두 차례에 걸쳐 100쌍의 신혼부부가 참여했다. 소통특강,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건강한 부부를 넘어 행복한 부모가 될 준비를 했다. 저출산, 가족갈등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학교는 계속될 예정이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정리수납사 2급 자격증 취득반 운영

속초YWCA는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정리수납사 2급 자격증 취득반' 운영 협약을 하고, 6월 23일(목)부터 7월 1일(금)까지 속초YWCA 교육장에서 과정을 진행했다. 정리수납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나아가 수강생들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개설된 이번 과정에는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인천YWCA 황진아 간사

'여성, 평화, 통일' 양성평등 특강

인천YWCA는 2016년 인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양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첫 강좌로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이 6월 28일(화) 오후 4시 인천YWCA 강당에서 여성의 눈으로 보는 평화, 여성이 꿈꾸는 통일을 주제로 '여성, 평화, 통일' 특강을 했다. 한 위원은 YWCA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성평등 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역설했다. 'Happy 인천!, Happy 양성평등!' 슬로건을 내건 양성평등 교육은 인천시민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계속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EM 수질정화 활동단

강원도 2016년 수질분야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응답하라 청(淸) 정(淨) 수(水)야'를 진행한다. 춘천YWCA는 이를 위해 오염된 강원지역 강과 하천에 EM 효공을 투척해 수질을 정화하는 'EM 수질정화 활동단'을 구성했다. EM 수질정화 활동단

은 7월 4일(월) 오염으로 악취가 심한 춘천 공지천을 찾아 EM 흙공을 던졌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여성의 생애 영화로 말하다’ 고양여성영화제



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7월 6일(수)부터 9일(토)까지 제6회 고양여성영화제를 열었다. 10대부터 노년 까지 세대마다 여성들이 직면한 삶의 과제를 8편의 영화로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30대 여성의 결혼과 육아 문제를 다룬 영화를 시작으로 중년 여성의 노동과 삶, 노년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 영화를 전문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를 통해 영화를 통해 여성의 생애를 살펴보고,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경험과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성평등 이야기

부천YWCA는 7월 2일(토) 중앙공원에서 열린 부천양성평등

문화제 메인행사로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성평등 이야기’를 주관했다. 장빈 목사(두레방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개회선언에 이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동네 부천은 안전한가?’, ‘부천의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 ‘부천의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 등 여성단체의 생생한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가수 홍순관씨가 자작곡을 불러 현장 분위기를 달궜으며,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성남YWCA 전아영 간사

KT&G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나들이



성남YWCA는 6월 26일(일) 다문화가족들과 용인 에버랜드에 다녀왔다.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는 8개 단체가 함께하는 연합사업으로 KT&G 복지재단이 지원했다. 이날은 성남YWCA 다문화가족 40명 등 모두 400명이 참여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서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시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생애주기별 ‘우리동네 시장탐험대’ 경제교육

6월 7일(화)부터 18일(토)까지 청소년과 결혼이민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시장탐험대’ 경제프로그램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가계소비에 대해 알

아보고 생활경제 체험학습으로 유상박물관과 못골시장에서 시장체험을 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를 실제 사용해 보고, 윤리적 소비문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의 가치를 경험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서른, 뜻을 세우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안산YWCA는 6월 16일(목)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서른(而立), 뜻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개회예배에 이어 기념식에서는 ‘생명을 귀하게, 삶을 정의롭게’라는 주제로 생명 중심, 약자 중심, 실천 중심을 핵심가치로 삼는 새로운 안산YWCA 30년 비전을 선언했다. 여성과 청소년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월데이 브런치카페’도 6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탈핵 캠페인

6월 14일(화) 범계역 로데오거리에서 핵발전소의 위험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도입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TT)입법 청원을 위한 시민서명 운동도 함께 벌였다. 서명용지는 20대 국회로 전달된다. 안양YWCA는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탈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미래에 주는 위대한 유산’ 그린에너지 강사양성 교육



의정부YWCA는 6월 13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지역 아동들이 에너지 실천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춘 놀이, 체험으로 공부하는 그린에너지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탈핵,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은 YWCA 중점운동인 탈핵생명운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환경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부

논산YWCA 배성운 부장

구직데이 ‘취업 그 어려운 걸 여성이 해내지 말입니다’

논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는 개관 17주년을 맞아

6월 23일(목) 오전 10시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의식을 높이는 '2016 구직데이'를 열었다. 1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설계' 특강, (주)동부팜 등 5개 기업체 채용담당자 소개, 직종별 현장면접으로 진행되었다. 하반기에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를 열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도전하는 여성의 희망 '대전 여성희망 취업박람회'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7월 5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30여개 업체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했고, 구직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구직자 자존감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 취업특강을 비롯해 다양한 직종소개, 직종체험 등 체험의 장도 마련되었다. 당일 취업을 못한 구직자들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천YWCA 김미경 간사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핑크머니 협약식'



제천YWCA는 6월 2일(목) 제천 입학초등학교와 청소년 금융교육 '핑크머니' 업무협약을 했다. 평소 금융교육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입학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7월 13일(수) 금

용지식과 함께 생활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YWCA 정상란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계도활동



천안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매주 금요일 유해업소를 방문해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부동 변화를 돌며 청소년유해환경 계도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 담배를 팔지 말자는 주제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과 사랑으로 지킴이 되어 주길 기도한다.

청주YWCA 최지경 간사

'걱정말아요 그대' 청주여성영화제



청주YWCA는 6월 23일(목)부터 24일(금)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아르떼관에서 청주여성영화제를 진행했다. '리얼 버라이어티 가족-걱정말아요 그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 '소꿉놀이'를 비롯해 '너는 착한 아이', '나의 어머니', '룸', '트윈스터즈' 등 5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여성친화 기업 9곳, 청주시민 28명의 후원, 308명의 청주시민이 영화

제 주관에 참여했다. 시네톡 <가족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가족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영화의 미래와 내년에 열릴 청주여성영화제 발전을 기대한다.

충주YWCA 김세희 간사

충주고 학생들과 양성평등 캠페인 전개

충주YWCA는 충주고등학교 학생들과 6월 17일(금) 제2차 양성평등 캠페인을 벌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은 동등하고, 남녀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감수성과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5월 14일(토)부터 6월 11일(토)까지 5회에 걸쳐 양성평등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무료급식소 방문 어르신 위문공연

광양YWCA는 6월 25일(토)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국생활협회 광양지부가 주관하는 위문공연을 벌였다. 6.25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공연에서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음악협회는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하는 단체로 광양YWCA 무료급식소 어르신들에게 보람도 함께 대접해 더욱 풍성한 자리를 만들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노사상생을 위한 공감소통 교육

광주YWCA 사회문제 및 소비자 상담실은 6월 21일(화) 롯데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공감소통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노사상생 프로그램으로 50인 이상 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

회통합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변화하는 트렌드 읽기, 인정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직장문화 형성 등의 강의에 이어 사내 우체통 운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과 관계회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교육



남원YWCA는 6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여성친화도시로서 남원이 여성권의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개발과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에는 강교자 연합회 증경회장이 '배려와 섬김의 여성지도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1세기는 여성성을 발휘하는 희생적인 지도력이 중요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포YWCA 과수현 부장

전남 서부권 여성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목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6월 22일(수)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16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 전남남도 서부권 9개 시·군에 자리잡은 195개 구인업체와 1,815명의 구직여성이 참여했다. 구인업체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함께 농

총형·도시형 창업업체들은 귀농·귀촌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관련 검사, 이력서 클리닉, 무료사진 촬영 등 취업컨설팅을 지원했다.



순천YWCA 문세인 간사

남성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순천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6월 1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건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성구직자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건물관리의 특성상 이번 교육은 50세 이상 남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금남의 구역'으로 알려진 YWCA에 남성들이 방문함으로써 여성복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YWCA 이념이 발휘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9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수료생을 위한 취업알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우리도 함께한다!' Y-틴 히포시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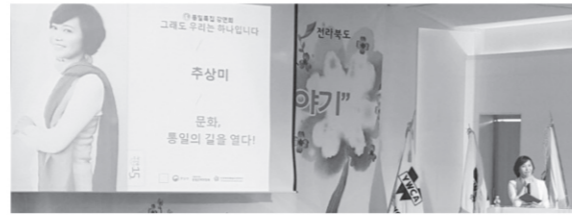


여수YWCA는 성평등 운동의 하나로 7월부터 연말까지 '히포시(HeForShe)' 캠페인을 펼친다. 남성들이 참여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자는 히포시 캠페인은 성평등 연대운동이다. 7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청소년회원으로 구성된 Y-틴

이 여수YWCA 히포시(HeForShe)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Y-틴은 캠페인 의미를 되새기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영화배우 추상미와 함께하는 '쾌도난마 이야기'



전주YWCA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7월 8일(금) 전주바울센터에서 전북도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배우 추상미와 함께하는 쾌도난마 이야기' 특강을 성황리에 열었다. 1부 기념식과 선포식, 2부는 쾌도난마 이야기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특강에서는 영화감독 겸 영화배우인 추상미씨를 강사로 초청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리고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특성화고 청년드림 잡 페어(Job Fair)



제주YWCA는 6월 29일(수) 오후 2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 특성화고 청년드림 잡 페어(Job Fair)를 열었다. 84개 채용면접관이 운영되었다. 금융권과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인사담당자 카운슬링, 기업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었다. 또한 대학, 기업체, 교육청 등 고용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와 일반 청년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습지탐방 가족원정대 '습지, 어디까지 가봤니?'

거제YWCA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지원으로 습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제시민 10가족을 대상으로 습지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11일(토) 1차 탐방지로 람사르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습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을 다녀왔다. 7월 16일(토) 2차 탐방은 통영 용남면 선촌갯벌에서 진행됐다. 연안습지에 사는 해양 생물을 채취하여 자연관찰용 확대경인 루페로 살펴보고, 다시 바다로 보내주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어르신 자서전 쓰기 '자기사랑노트' 개강



김해YWCA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 '자기사랑노트' 강좌를 6월 14일(화)부터 열고 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자기사랑노트는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통해 힐링과 자아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자서전 쓰기, 수학여행, 책 편집 등으로 구성되며 10주간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남은 삶에 대한 목표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EM애(愛)더하다' 교육

대구YWCA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EM애(愛)더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0일(월)에

개강한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오염된 물과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유익한 미생물 EM 사용을 권장하고자 마련되었다. 6개월간 진행될 EM 교육은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한 EM 흙공던지기, EM 생필품(화장품, 비누 등) 만들기 등 실생활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강생들이 EM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양성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가족대상 습지탐방 프로그램



습지 기능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가족대상 습지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7월 2일(토) 창녕 우포늪에서 진행했다. 습지해설사가 우포늪 소개와 습지 가치를 설명했으며, 참가자들은 습지 동식물 채집과 관찰을 해보고 뗏목 체험도 하였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참여 가족들이 우포늪의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마산YWCA는 10월까지 6차례 걸쳐 습지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사천강 살리기' Y-틴 캠페인

6월 18일(토) 사천강 일대에서 Y-틴들이 직접 만든 EM 발효액으로 오염된 사천강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EM 효능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우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어린이합창단 요양병원 자선공연



양산YWCA 어린이합창단은 6월 4일(토) 을주군 이손요양병원에서 환우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자선공연을 펼쳤다. 먼저 '다섯 글자 예쁜 말', '밤하늘 여행',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등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어린이들의 '홀로아리랑 부채춤'은 어르신들 눈시울을 적시며 위로 시간이 되었다. 특별출연한 평생학습동아리 민들레동요학교는 '고향땅', '달맞이' 등 동요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도말순 어린이합창단장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워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자선공연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YWCA 고병정 팀장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차원이 다른 양성평등 이야기'

진주YWCA는 7월 7일(목)에서 16일(토)까지 4회에 걸쳐 회원

들과 함께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 7일 이주여성을 시작으로 8일 돌보미(가사노동자), 13일 노인대학, 16일 Y-틴과 대학Y 회원까지 230여명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참여했다. 정윤정 진주성폭력상담소장이 강의를 맡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며 이해를 돕는 사례소개와 참여활동도 진행된다.

창원YWCA 정미영 간사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에코 플리마켓



YWCA가 최초로 펼친 아나바다 운동이 공유문화 운동으로 진화한 가운데 플리마켓으로 공유경제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창원YWCA는 5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코 플리마켓' 프로그램을 진행해 체험을 통한 공유경제 실천의 중요성을 확산할 예정이다. 2016년 경상남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착한 소비와 공유경제 가치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결합한 '에코 플레이' 방식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코리아, 100년을 디자인하다' 통일교육

포항YWCA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월) '코리아, 100년을 디자인하다' 주제로 경북통일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이동기 통일교육위원과 김정수 경북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이 강연한 이번 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퇴계의 삶을 통한 통일시대 민주시민의 자세'와 '코리아, 다시 100년을 디자인하자!'로 퇴계 이황의 삶을 통해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남북 여성으로 구성된 통일여성합창단 공연은 분단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7월 · Jul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부산Y 창립기념일 (1946.7.1)	2
3	4 고양Y 북극곰의 내일을 생각하는 주엽1동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25일) 양산Y 여성문화살롱 양성교육 개강	5 남원Y 남원시 양성평등 주간행사 대전Y 여성희망 취업박람회 부산Y 창립 70주년 기념식	6 강릉Y 어린이 EM 교육 (~7월 20일) 서울Y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여성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 '피스 인 아시아' (~15일)	7 광양Y 양성평등주간 한마음체육대회 대전Y 제21회 대전 여성포럼 양산Y 제9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의정부Y 건물청소원 교육 (6월 27일~7월 7일)	8 남양주Y 창립기념일 (1997.7.8) 광주Y 소심당 조아라 제13주기 추모예배 의정부Y 그린에너지 강사양성교육 (6월 13일~7월 8일)	9 익산Y 창립기념일 (2002.7.9) 충주Y EM사랑 환경사랑 캠페인
10	11 청주Y 창립기념일 (1965.7.11)	12 거제Y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속초Y 회원증모 최종평가 수원Y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제주Y 일자리 전략 컨퍼런스 제천Y 환경지킴이 활동	13 Y-틴 지도교사 워크숍 제주Y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견 및 진로체험을 위한 '내안의 별(★)찾기' 개강식	14 제2차 길 위의 평화학교 연구모임 광양Y 참살이 시민운동 강좌 (~28일)	15	16 중부지역 Y-틴 회원대회 성남Y 청소년재능 기부 음악회 창원Y 1일 하브루타 청렴캠프 포항Y 포스코 학습지원 봉사단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17	18 목포Y 회원증모2차 보고회-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9주년 기념예배 서울Y 청년-대학생 '연변-백두산 평화캠프'	19 광주Y 2016년 상반기 프로그램 평가 및 예산안협의회 목포Y '세상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성인지감수성' 양성평등 리더교육(~21일) 부천Y 협동조합 돌봄임원 리더십 향상교육 인천Y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직원 워크숍 (~20일) 춘천Y 탈핵캠페인	20 고양Y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속 합의 폐기를 위한 고양수요집회 남원Y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모교육	21 마산Y 창립 50주년 기념식	22 Y-틴 중앙임원단 회의 (~23일)	23 안산Y 안산 청소년 평화통일캠프 (~24일)
24 마산Y 창립기념일 (1966.7.24)	25 제2차 YWCA 여성주의 평화운동 현장 워크숍(동해YWCA) 동해Y 피서지 소비자 이동상담, 캠페인	26 수원Y 인권증진 교육 프로그램 (~28일) 여수Y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수료식 충주Y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소년 기행 (~27일)	27 속초Y 소비자 이동상담(속초해수욕장 예정)	28 청주Y 청년 공정여행 (~30일)	29 동부지역 Y-틴 회원대회	30 마산Y 가족 습지인식 증진 프로그램 '습지의 습과 삶'
31 순천Y 인권바자회 (5월 9일~7월 31일)						

8월 · August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제17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4일)	2	3	4	5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 동해Y 평화 커뮤니티 캠프(철원 국경선 평화 학교)	6
7	8 일본YWCA 히로시마 순례 (~12일) 부천Y 청소년 봉사학 교 (~15일)	9	10	11 포항Y 청소년유해관 경감시단 정기회의	12	13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 창원Y 제4회 청소년 토론회
14 광양Y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청소년 캠프	15 청주Y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청년기행 (~17일)	16	17	18 생크머니 2차 실무자 협의회 제천Y 탈핵 캠페인 및 FIT입법 도입 서 명 운동	19	20 안산Y 성폭력피해 청 소년 집단상담 (~21일)
21 제9차 한일YWCA 협의회 (~24일)	22 여수Y 제13회 에너지 의 날 캠페인 '불을 끄 고, 별을 쬐다'	23 2016 YWCA 전국회 원대회 (~24일)	24	25	26 전주Y 축산물 HACCP 소비자 바로알기 현장 체험 및 탈핵마을 탐방	27 광주Y 직원연수 인천Y Y-틴, 대학청년 Y 연합 체육대회
28	29	30 Y-틴 대표간사 워크숍 (~31일) 거제Y 창립기념일 (1990.8.30)	31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대상 및 자격

- 대 상 (상패, 상금 2천만원)
전문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젊은지도자상 (상패, 상금 1천만원)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 특별상 (상패, 상금 2천만원)
세계화 시대 문화 다양성과 평화·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활동을 적극 실천해온 여성 또는 단체

추천서 배부와 접수

- 추천서 배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우 04538)
TEL: 02-774-9705 FAX: 02-774-9724 E-mail: ywcamail@naver.com
- 접수기한: 2016년 8월 26일(금) 우편접수 마감 당일 소인 유효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

- 발표 : 2016년 10월 초
- 시상 : 2016년 11월 3일(목) 예정

YWCA (사) 한국YWCA연합회

citi 한국씨티은행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7월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하게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경안정**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평일 (18:00~20:00), 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 ▶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참여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간병비가 확~ 줄어듭니다!”

